

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	보도자료	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담당자	• 배포 : 2019. 09. 18(수) • 철도실 정시교 실장/김진희 연구원/김철우 연구원 • ☎ 031-389-6470 / 031-389-6416 / 031-389-6474 • skjung@kaia.re.kr / colorzzang@kaia.re.kr / kimcw@kaia.re.kr	
보도일시	• 즉시 보도해 주십시오.	

국토부 · 국토교통진흥원, 철도R&D 제도개선 · 철도용품 국산화 방안 모색

- 9.18(수), 11개 철도 건설 · 운영기관(연구개발협의체)과 정책 간담회 개최
및 업무협약 체결 -



(좌) 정책 간담회 개최 (우) 국토교통진흥원-연구개발협의체 업무협약 체결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, 이하 국토부)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원장 손봉수, 이하 국토교통진흥원)은 18일(수)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철도R&D 제도 개선 및 철도용품 국산화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.
- 본 간담회에는 총 11개*의 철도운영기관 연구개발협의체(이하 연구개발협의체)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으며,
- * 철도시설공단, 한국철도공사, 서울교통공사, 부산교통공사, 대구도시철도공사, 인천교통공사,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,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, (주)SR, 공항철도(주), 네오톨랜스(주)

- △국가R&D 성과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및 충분한 성능검증 기간 확보 △현차시험(on-track test) 간소화를 위한 철도차량 개조 승인 절차 완화 △철도분야 일본 부품소재 현황 공유 및 국산화 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.

□ 이어 국토교통진흥원과 연구개발협의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제고 및 실용화 촉진, 기관 간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**업무협약을 체결했다**.

- 기관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△연구성과 현장적용 및 실용화 기반 구축 △철도 핵심 용품 국산화 및 강소기업 성장·시장진입 확대 방안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.

□ 손봉수 국토교통진흥원 원장은 “국내 철도 운영기관 및 기업 간 상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철도R&D 성과의 국내·외 시장진출 확대와 철도 핵심 용품 국산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”고 밝혔다.

□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“철도R&D 성과의 실용화와 철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※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(www.kaia.re.kr)

국토교통부 산하 유일한 국가 R&D사업 전문기관으로서 4,822억 원('19년 기준)의 R&D 예산을 집행·관리하고 있으며, 주요사업으로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(건설기술 연구사업, 플랜트연구사업, 도시건축연구사업,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, 교통물류연구사업, 철도기술연구 사업,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등), 건설·교통신기술 인증 및 기술가치평가 사업이 있다.